

걸프국, 이란 드론·미사일에 격분...군사대응 거론

미군기지 이어 호텔·공항 피격...‘중동의 뉴욕’ 두바이 화염 배신적 공격 규탄...이란 “이웃국 적의 없어...군 시설만 공격”

이란의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외교장관은 1일(현지시간) 화상 연결 방식으로 회의를 열고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관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 안보와 안정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장관들은 이란에 즉각적 공격 중단을 촉구하면서 “걸프 지역의 안정은 단지 지역적인 관심사일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안정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두바이, 도하, 마나마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의 주요 도시는 지난달 28일 전쟁 개시 이후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이란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들 국가의 미군 시설 외에도 공항, 호텔, 아파트 등 교통 인프라와 민간 주거·상업 시설에까지 대거 미치면서 현지 민

간인 사상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미군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고의로 민간 시설을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선택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군에 미군 관련 시설만 표적으로 삼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어떠한 적의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들과 우호적 관계를 추구할 의지가 확고하다”며 “미국 군사기지에 대한 이란의 방어적 대응이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동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중 하나로 중동 지역의 교통·금융 허브 역할을 해

이의 경우 이란의 집중적 공격을 받고 있다. 세계적 규모의 두바이국제공항은 드론 공격으로 터미널 건물이 일부 부서지고 직원 4명이 다쳤다.

UAE 국방부는 1일까지 이란에서 탄도 미사일 총 165기, 무인기(드론) 541대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후, 이스라엘 점령지인 서안 지구의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이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날아왔으며 이 중 드론 35기가 방공망을 뚫고 영토 내로 떨어지면서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몰린 두바이의 유명 관광지인 인공섬 팜 주메이라에서도 이란에서 날아온 샤페드 드론이 페어몬트 호텔 인근에서 폭발해 화재가 발생해 주민과 관광객이 불안에 떨었다.

UAE는 이에 항의해 이란 주재 대사관을 폐쇄하고 모든 외교사절단을 철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란의 공격은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국 역할을 수행해온 카타르도 겨냥했다.

카타르 외무부의 마제드 알안사리 대변인은 미 CNN 방송에 “국제공함을 포함한 공격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타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

란 공습 계획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지만 현재는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로서는 이란 측과 접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이번 위기도 협상 테이블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알안사리 대변인은 “카타르의 해상·육상 에너지 시설은 방어됐고, 노동자들도 안전하다”면서도 “이런 공격은 좌시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타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

미군, 이란 공격 중 사망 6명으로 늘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된 미군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숨진 미군이 6명으로 늘어났다.

미 중부사령부는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 동부시간 2일 오후 4시 현재 미군 장병 6명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추가 확인된 전사 장병 2명은 그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가 이란의 초기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시설에서 최근 유해가 수습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작전이 중·장기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덴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에서 “군사적 목표 달성은 시간이 소모될 것이며, 일부 경우엔 어렵고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